

3.

한시와 그림으로 읽는
점필재 선생의 따뜻한 가족애

▶ 프롤로그: 점필재 선생과 그가 남긴 가족에 대한 시편

점필재 선생의 문집에 남아 있는 한시 가운데는 가족을 읊은 한시들이 적지 않게 실려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옛사람들에게 한시는 거의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틈이 생길 때마다,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시 지을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 말 그대로 밥 먹고 물마시듯이 그렇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잘 짓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수씩 짓기도 했습니다. 현재 문집에 남아있는 시는 그 중 좋은 시, 후세에 남길만한 시만을 추리고 추려서 엮은 것입니다. 당연히 한시에는 별별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시로 쓴 내밀한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필재의 한시는 내용이 다양하기로 유명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한시의 주제들만 모아보아도 당시 점필재의 일상생활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주 풍부한 시인이었던 점필재는 살아가면서 남길만하다 싶은 모든 일을 시로 썼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 시대를 지내면서 겪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점필재집에 남아있는 시만을 놓고 보아도 점필재가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나 계절을 대할 때나 평소에 마주치는 여러 가지 인간사를 대할 때 얼마나 곡진한 마음으로 이들을 한시로 표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점필재의 한시 중 가족에 관한 한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둘째 형님 김종유나 친구 김맹성, 처남 조위와는 많은 수창시를 남기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한두 수 정도의 한시만이 남아있습

니다. 하지만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 속 깊은 정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점필재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읊은 한시는 절절한 그리움, 곡진한 사랑 때로는 가슴을 저미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 절창 중의 절창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점필재가 가족에 대해 읊은 한시 중 특히 직계 가족에 관한 한시만을 뽑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만큼의 범위를 가족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조부모, 부모, 형제, 조카, 처, 자식, 손자 등을 가족의 범위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가까운 인척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점필재의 한시는 35세 때부터 62세 때까지 분량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생존해 있던 가족들에 대한 한시가 주로 남아있습니다.

점필재의 한시에 조부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 김숙자(金叔滋)를 추억하는 한시가 한두 수 있습니다. 김숙자의 첫째부인 한씨 소생의 형제들에 대한 한시는 없습니다. 큰형님 김종석(金宗碩)도 39세의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점필재 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둘째 형님 김종유(金宗裕)와의 사이에 주고받은 한시가 많이 남아있어 점필재의 형제간 정이 얼마나 돈독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친조카들에 대한 한시는 없습니다.

선산 땅 강척(康惕)에게 시집간 큰누님의 소생들인 강백진, 강중진 형제는 생질이자 점필재의 대표적인 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한시도 몇 수 남아있습니다. 둘째 누님에 대한 한시는 없습니다.

첫째부인인 조씨와의 사이에는 3남 2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큰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젊어서 죽었습니다. 세 아들이 죽을 때 적은 절절한 마음들, 특히 조씨 부인이 죽었을 때의 비통한 마음은 점필재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인지를 알게 해 줍니다. 조씨 부인의 동생인 조위(曹偉)와는 처남이자 제자이자 동지로서의 관계였기에 주고받은 한시가 매우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재주가 뛰어났던 서처남(庶妻男)들인 조진(曹侁)과 조신(曹伸)에 대한 애정도 볼만합니다.

둘째부인 문씨와의 사이에는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문씨와 아들 송년(嵩年)을 두고 읊은 한시가 각각 한두 수 정도 전합니다. 만년에 지은 이들 한시는 마치 예언처럼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돈들입니다. 점필재는 둘째아들 곤을 절친한 친구였던 김맹성(金孟性)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김맹성과의 사이에는 젊은 시절부터 주고받은 아주 많은 한시가 남아있습니다. 큰딸을 밀양출신으로 통판을 지낸 유승식(柳承澁)의 아들에게 시집보냈습니다. 둘째딸은 정치적 동반자였던 이인형(李仁亨)의 아들에게 시집보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대의 명사들이었으며 이들을 두고 읊은 한시가 몇 수 남아있습니다.

이글에서는 가족을 읊은 점필재의 한시 중 몇 수를 뽑아 해설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김숙자와 형제, 사돈 사이의 한시를 몇 수 살펴보고 이어서 조씨 부인과 세 아들, 문씨 부인과 아들 송년을 읊은 한시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대한 스승으로만 알려진 점필재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던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시] 부친 김숙자, 지극히 맑았던 아버님

점필재가 아버지 김숙자의 학문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숙자는 점필재에게 아버지이자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1466년 여름쯤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안동의 별실(別室)에서 선친의 시를 보고 삼가 차운하다[安東別室, 觀先君詩, 奉次]>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에는 소서(小序)에 김숙자의 시를 먼저 소개하고 나서 점필재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시를 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때 점필재는 36세로 영남좌병영의 병마평사로 각 고을을 순회하며 군기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안동에 들렀다가 객관의 별실에 목격 되었는데 거기에 아버지 김숙자의 시가 현판에 걸려있었던 모양입니다. “계유년(1453) 봄에 동당(東堂)의 향시 고관(考官)이 되어 칠원현감 남질(南軾), 진보현감 송지윤(宋允智)과 함께 읍으신 것이다.”라는 소서(小序)의 기록으로 보아 김숙자는 13년 전인 1453년 봄 개령현감 당시 향시의 시관으로 안동에 왔다가 현판의 시를 지었습니다. 현판의 시는 점필재가 이 시를 지은 때로 보아 13년 전에 지어진 것이고 김숙자가 죽은 것은 1456년이니 딱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준록(彝尊錄)』에 따르면 김숙자가 현판의 시를 지은 때인 단종 1년(1453)은 김숙자의 나이 65세 때였습니다. 1453년에는 김숙자 가문에 특별히 좋은 일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큰아들 종석(宗碩)이 가을에 생원진사시에 합격했고, 둘째아들 종유(宗裕)는 가을에 진사시, 셋째아들 종직(宗直)이 봄에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또 조계문(曹繼門)의 딸과 정혼한지 3년만에 종직의 초례를 겨울에 치렀습니다. 점필재로서도 잇을 수 없는 해였을 것입니

다.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 김숙자에게 대한 추억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점필재가 가학 곧 아버지 김숙자에게 배운 학문이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김굉필·정여창 등의 성리학은 점필재가 아버지 김숙자에게 배운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시는 점필재가 배운 성리학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김숙자의 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塵埃不接日還晶 세상 먼지 접하지 않아 햇빛은 더욱 투명한데
況復無邪夜氣清 하물며 샷된 것마저 없어 밤기운이 맑음에라.

세상 먼지를 아예 접하지 않은 햇빛은 수정처럼 투명하고 맑겠지요. 해는 곧 낮이자 또 김숙자 자신의 마음입니다. 낮 동안 마음에 세상 먼지 묻지 않도록 조심하여 수정 같은 상태를 유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이 되자 안동 객관 별실에 묵었는데 경치도 좋고 고요하여 마음이 더욱 맑아집니다. 그래서 낮에 맑던 그 마음 그 기운이 더욱더 맑아졌으며 샷된 것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를 성리학에서는 최고의 상태로 칩니다.

得趣小軒發深省 작은 헌함에서 정취 얻어 깊은 각성하는데
春溪雨過沒絃聲 비 지난 봄 골짜기에 줄 없는 거문고 소리 들리네.

별실의 난간에 기대어 밤기운 즐기면서 맑은 감정에 젖어 밤기운 속으로 젖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문득 시냇물 소리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객관 옆 시냇물이 봄비에 물이 불어 물소리마저 맑게 울립니다. 밤은 고요한데다가 어두우므로 물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겠지요. 고요한 속에 울리는 물소리가 마음을 울리며 사람과 물소리가 하나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우주가 하나의 울림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성리학의 최고 단계이기도 합니다.

김숙자의 시는 고요한 별실의 밤에 자신의 맑은 마음을 느끼다가 시냇물의 맑은 소리와 하나 되는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필재는 이시를 읽고 생전에 아버지 김숙자가 가르쳐주던 마음의 높은 단계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胸中列宿十分晶 가슴 속에 별자리 같은 글 십분 맑으니
嚴訓唯知服至清 남기신 가르침에서 지극한 맑음 가슴에 새길 뿐.

아버지 김숙자의 시에서 아버지 가슴 속에 28수 별자리 같은 학문이 있고 그 학문이 빛어낸 시가 아버지 마음 속 맑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훌륭하고 맑았던 마음의 소유자였던 아버지는 벌써 10년 전인 1456년에 저세상으로 가고 없지만 아버지가 깨달은 그것은 남겨놓은 현판의 한시 속에 바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한테 그 깨달음을 배웠던 자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둘이자 하나입니다. 아버지 김숙자는 가고 없지만 점필재 속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今日偶來深省地 깊은 성찰하셨던 곳에 오늘 우연히 와서
不堪揮淚聽溪聲 시냇물 소리 듣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네.

아버지가 깨달음을 얻었던 그곳에 13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작고하고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찰의 흔적은 그날 밤 이 자리에서 아버지 김숙자가 그랬던 것처럼 맑은 밤기운과 그 속으로 녹아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남아있는 아버지 김숙자의 흔적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들었던 그 시냇물 소리가 다시 새롭게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평소 들던 소리가 아니라 오늘 아버지 김숙자의 한시로 인해, 아버지 생전에 성찰하던 그 소리로 새로워진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김숙자가 점필재에게 남겨준 소리이고 당시 김숙자가 현감으로 있던 개령에서 점필재가 김맹성 등과 함께 배웠던 그 학문의 실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점필재는 ‘눈물을 뿌렸다[擲淚]’고 할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던 모양입니다만 이런 때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도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꺅꺅 목 메인 소리를 내도 좋겠지요. 이런 때 소리 내어 울지 않고 어느 때 울겠습니까?

어쨌든 이 시들을 보면 점필재가 아버지 김숙자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가고 없는 아버지를 얼마나 절절하게 그리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겨진 김숙자의 학문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시] 사돈 김맹성, 봄 햇살 같은 내 친구

다음으로 점필재의 둘째아들 곤(緄)의 장인인 김맹성에게 준 <선원이 찾아오다[善源來訪]>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원은 김맹성의 자이며 점필재의 어릴 적 친구입니다. 집은 함천 가야산 아래에 있으며 점필재의 아버지 김숙자가 개령현감으로 있을 때 개령으로 찾아가 배운 사이입니다.

평생 친구였던 두 사람은 아들과 딸을 혼인시켜 더 깊은 사이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점필재의 아들 곤은 병에 걸려 17세에 밀양에서 죽고 맙니다. 이때 점필재는 어머니 삼년상을 치르느라 밀양 집에 있었습니다. 곤이 죽기 직전 아들을 낳았으나 그 아들 곤 점필재의 손자도 한 달을 못 넘기고 죽습니다.

이때 일을 점필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월에 곤의 아내가 개령 횡천리의 집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선원이 희손이라 이름하였다. 그런데 시월 이십팔일에 곤의 아내가 밀양에 오자, 나의 숙인이 문밖에 나가 그 아이를 안아 보려고 하다가 그제야 비로소 월초에 이미 요사했음을 알게 되었다.”

병든 아들은 누워있는데 며느리가 왔다는 소식에 손자 볼 생각에 그저 기뻐서 뛰어나가는 조씨 부인의 모습과 비어있는 며느리의 품을 보고 놀랐다가 결국 천지가 아득해지는 슬픔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 눈에 선합니다.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선원이 찾아오다[善源來訪]>는 점필재가 35세 되던 1465년 작품입니다. 점필재는 바로 전해인 1464년 세조의 뜻에 어긋나는 상소를 올렸다가 파직되어 고향 밀양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1465년 봄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갑니다.

다. 이때 올라가는 길은 밀양에서 낙동강을 타고 칠원, 창녕, 합천, 금산을 거쳐 추풍령을 넘어서 충청도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는 이 길이 서울로 가는 대표적인 길이었습니다.

점필재는 밀양에서 금산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합천에 사는 김맹성이 뒤따라와서 금산에서 만납니다. 이때까지 김맹성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만물이 피어나는 봄날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를 위해 금산까지 찾아온 김맹성의 우정이 아름답습니다.

柴門桃李下 복사꽃 오얏 꽃 핀 사립짝 아래에
握手共開顏 손 맞잡고 함께 활짝 웃노라.
物色能供笑 경치는 웃음을 도와줄 만하고
風流未覺慳 풍류도 아직은 인색하지 않다오.

복사꽃은 붉은 꽃, 오얏꽃은 하얀 꽃이고 이 나무들은 키가 큰 나무입니다. 붉은 색과 하얀 색이 어우러진 꽃나무 아래 사립문이 있습니다. 그 아래 두 친구가 만나 활짝 웃습니다. 둘의 웃음과 복사꽃, 오얏꽃의 웃음이 어느 쪽이 더 밝았을까요.

그냥도 반가운 웃음이 날 터인데 때는 만물이 피어나는 봄입니다. 붉은 꽃 하얀 꽃들이 피어나고 나뭇잎은 연둣빛으로 물듭니다. 봄날의 색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러니 반가운 웃음이 더 빛났겠지요. 거기에다 두 사람 다 이제는 원숙한 풍류를 아는 3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봄날의 미친 흥을 즐길 줄 아는 나이이기도 하지요.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이 부럽기만 합니다.

挑燈談欲罄 등불심지 돋워가며 이야기를 쏟아내려는데
恨別意相關 이별이 아쉬워 마음은 서로 애뜻하기만.
明日甘川岸 내일이면 저 감천 언덕에서
垂楊可忍攀 버들가지를 차마 부여잡을 수 있을까.

오늘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내일이면 이별해야 합니다. 점필재는 추풍령을 넘어 기약 없이 서울로 가고, 김맹성은 다시 자기 집이 있는 합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친구를 만나 마음껏 즐거워하는 마음 한구석엔 이별의 무거움이 살짝 드리워져 있네요.

감천은 추풍령 아래에서 발원하여 김천, 개령, 선산을 거쳐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당시에는 큰 강이었습니다. 점필재는 내일 감천을 거슬러 올라가 추풍령으로 향해 가야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이별하는 곳은 버드나무 심어진 감천 가입니다. 버드나무는 강가를 따라 심는 나무이며 강둑을 보강하기 위해 심었습니다. 예전에는 강가 둑을 바로 관도(官道)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하면 곧바로 이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봄이라 버드나무가 열은 연두빛으로 물드는 때입니다. 연두빛 두 줄기가 강둑 따라 저 멀리까지 쪽 뻗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아래 어디쯤인가 그리운 사람 점필재가 가고 있습니다. 남은 김맹성은 버드나무를 부여잡고 여기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겠지요. 오늘날은 전화만 하면 친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헤어지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몇 년 뒤에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젊은 봄날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무거움이 교차하고 있네요.

김맹성은 점필재가 경상도의 인사 중 가장 친한 사람으로 인정한 사이입니다. 젊은 날 저 연두빛 봄날 같은 우정은 평생을

가도 평생을 써도 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갈면 갈수록 더 영기는 먹물처럼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많은 시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사돈이 되었겠지요.

[셋째 시] 큰 아들 纒(獸君), 추운 길 조심하거라

여기서 살펴볼 한시는 <수군이 금산(金山)으로 가다[獸君如金山]>입니다. 지어진 때는 점필재가 38세 되던 예종 즉위년(1468) 설을 바로 앞둔 12월 어느 날입니다. 이해 봄에 점필재는 영남병마평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새 벼슬을 받습니다. 이때 점필재는 가족을 모두 이끌고 서울로 옵니다.

수군(獸君)은 내용으로 보아 장남 纒(纒)입니다. 수군이라 한 것은 아마 예전에는 어린애들에게 개똥이, 쇠똥이와 같이 짐승들 이름을 붙여 불렀기에 이르는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점필재 당시에는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금산(金山)은 오늘날의 김천으로 점필재의 첫째부인이자 수군의 어머니인 조씨의 고향입니다. 아마 조씨가 시집올 때 가져온 전장(田庄)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며, 조씨 부인은 주로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점필재의 집이라고 하면 밀양보다는 오히려 금산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양에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전장이 있었으므로 두 곳 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이 시에는 열 살 겨우 넘은 어린 아들이 설달 추운 날씨에 천리 먼 금산까지 가야하는 것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汝歸緣病母	너는 병든 모친 때문에 돌아가는데
吾滯爲新君	나는 새 임금 위하여 머물러야 하는구나.
歲晚誰相守	세월에 누구와 그믐밤을 보낼거나
天寒不忍分	날마저 추우니 차마 헤어지지 못하겠구나.

이때 수군은 서울에 있다가 설을 쇠러 어머니 조씨가 있는 금산으로 내려가는 그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봄에 서울로 같이 왔던 조씨 부인은 그동안 금산으로 내려갔고 현재는 병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한 때라서 점필재는 어린 아들만 보내고 자신은 서울에 남아야 합니다.

네가 가버리면 나는 누구와 설을 보내느냐는 서운함 심정, 거기에다 추운 길을 가야하는 아들 걱정이 많네요. 당시 수군이 갔던 길은 평택·천안을 거쳐 청주를 지나 추풍령을 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곳은 높은 산이 없는 평지라서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대로 들이닥칩니다. 당시는 특별히 추위가 심했고 눈도 많이 내렸을 테니 추위를 걱정하는 점필재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關亭宜少睡 역사(驛舍)에선 잠도 안 올 터이고
盜賊動成羣 도적이 걸핏하면 떼 지어 온다는 구나.
更念方髫稚 더욱 염려되는 건 아직 어린 나이에
難辭道路勤 노정의 괴로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구나.

당시에는 40리마다 역이 있어 잠도 자고 쉴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평소 잠자리와는 달라 귀하게 큰 수군으로서는 잠을 잘 못 잤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자리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거기에다 밤 강도가 역사를 습격했다는 소문도 자주 들려오니 아들 혼자 천리 길을 보내는 아버지로서는 걱정이 많았겠지요.

이때 수군이 금산으로 가는 길은 어른도 10일 정도는 걸어야 하는 먼 길입니다. 열 살 남짓한 수군이 거기에다 추운 눈길을

가자면 무척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수군은 혼자 가지는 않았습니니다. 건장한 남자종이 따라갔고 말이나 당나귀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추위에 먼 길 가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같이 가야하는데 못가는 안쓰러운 아버지 점필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한시는 두 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十齡入小學	열 살에 『小學』을 읽었으니
汝已後於吾	너는 이미 나에게 뒤졌구나.
龔瞽吾猶患	귀먹고 눈 어두운 내가 걱정하노니
箕裘汝可圖	家業은 네가 도모해야 하느니라.
存心從唯諾	마음을 보존함은 공손하게 순종함으로부터이고
爲學慎樞趨	학문을 함에는 스승께 공손히 나아가야 하나니.
突弁今無幾	冠 쓰고 어른 될 날 이제 멀지 않으니
殷勤嚮聖謨	정성으로 성인의 훈계를 일러 주노라.

열 살에 소학을 읽었으니 나에게 뒤졌다는 것은 아마 칭찬하는 말일 것입니다. 가업을 맡길 큰아들에 거는 기대입니다. 열다섯이면 보통 관례를 행하니 수군은 아마 열두 셋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례를 올릴 나이가 되는 아들을 바라보며 거는 기대와 염려와 간절한 바람이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수군 곧 큰아들 억은 결혼도 못하고 20살도 못되어 죽고 맙니다.

[넷째 시] 셋째 아들 統(木兒), 내 아들이 어디로 갔느냐

다음으로 <목아(木兒)를 애도하다[悼木兒]>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한시는 점필재가 44세 되던 성종 5년(1474) 2월 28일에 지은 것입니다. 목아는 1470년 5월에 서울에서 낳아 이미 다섯 살이나 되었는데, 1474년 2월 28일에 열꽃이 피어 죽었습니다. 목아가 태어날 때의 연월일이 모두 木星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아라 이름했다고 합니다. 이때 점필재는 함양군수로 있었습니다.

忽辭恩愛去何忙 홀연 사랑하는 부모 두고 어디로 바빠 가느냐
五歲生涯石火光 다섯 살의 생애가 번쩍하는 사이구나.
慈母喚孫妻喚子 어머니는 손자 부르고 아내는 자식 부르니
此時天地極茫茫 지금 이 천지는 끝없이 아득하기만 하여라.

목아는 생김새도 또렷했고 비록 어렸지만 똑똑해서 점필재가 유난히 사랑하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온몸에 열꽃이 돋더니 영원히 부모 품을 떠나 가버린 것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바빠 가버린 자식, 다시는 볼 수 없는 자식, 그래서 천지가 끝없이 아득하기만 하다는 말하는 이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다 헤아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하늘과 땅 사이가 아득하기만 한 것입니다.

목아는 함양 서쪽 석복리(席卜里)에 초빈했다가 금산의 미곡(米谷) 외조모 이씨의 무덤 발치로 이장했다고 합니다. 이 미곡에는 나중에 목아의 친모인 조씨 부인이 묻혔습니다. 한편 목아가 죽은 10여일 뒤인 삼월 초구일 사시에 학사루 앞의 늪은 매

화나무가 바람에 부러져 죽습니다. 점필재는 아마 요절한 목아와 수백 년 버텨온 매화나무의 죽음 사이에 묘한 인연의 끈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시] 첫째 부인 조씨, 저 빗물은 당신 눈물

아들을 셋이나 두었으나 모두 생전에 앞세운 비운의 여인 조씨 부인. 그녀는 점필재의 나이 23세 되던 1453년 겨울에 결혼하여 52세 되던 1452년 4월 30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점필재와 햇수로 30년을 살았으며 3남 2녀를 낳았으니 인생의 동반자라는 말에 그대로 어울리는 부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녀는 무덤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 양반 집안의 부인은 그냥 팔자 좋은 안방마님이 아닙니다. 벼슬살이하느라 또는 과거 보느라 바깥일에 바쁜 남편 뒷전에서 집안일을 모두 감당하고 노비들을 부려 농사도 짓게 하고 집안의 경제적 사회적 모든 일을 다 맡아 해내는 만능 조직가이자 경영자입니다. 당시의 양반 집안은 지주였으니 요즘으로 말하자면 중소기업의 여사장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조씨 부인이나 후처인 문씨 부인 모두 이러한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씨 부인은 뛰어난 시인이자 정치가인 동생 조위를 두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조위는 점필재의 처남이자 문인이었습니다. 만약 점필재의 후계자를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면에서 두드러졌던 바로 이 사람일 것입니다. 서동생 조신(曹伸)도 당대에 뛰어난 시인이자 외교관으로 역시 점필재의 문인이었습니다.

하늘은 조씨 부인에게 훌륭한 집안과 남편과 동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주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큰아들 셋째아들 모두 일찍이 그녀를 떠나갔습니다. 둘째아들 곤(緜)은 그녀가 점필재를 따라 시어머니 삼년상을 치르던 마지막 해 밀

양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해인 1482년 4월 30일 밀양에서 금산집으로 와있던 그녀는 결국 남편 점필재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아마 이미 사그라든 촛불이 까무룩 잤아들 듯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안아보지도 못한 손자와 마지막 남은 둘째아들을 연달아 보낸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조씨 부인에 관한 시 중 <유월 십일일에 아내의 빈소를 하직하고 금릉을 출발하여 이천원에서 비를 만나다[六月十一日, 辭妻殯, 發金陵, 梨川院遇雨]>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식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은 점필재는 부인을 초빈해두고 6월 11일 서울로 떠납니다. 당시에는 부모의 삼년상 동안 관리들은 휴가를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삼년상이 끝나면 복귀해야 합니다. 점필재는 아내의 장례도 못 치르고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천원(梨川院)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정원(梨亭院)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금산 읍치의 북쪽 20리에 있는데 아마 이천(梨川) 가에 있는 원에 정자가 있기에 이런 이름이 붙지 않았는가 합니다. 결국 금산을 출발해 20리도 못가 장마비에 막혀 이천원의 정자에서 비를 피하면서 이 시를 짓고 있습니다.

昔與君俱北	그 옛날 그대와 함께 북으로 왔다가
今朝我獨行	오늘 아침엔 나 혼자만 떠나노니.
欄門群婢泣	문에 가득한 여종들은 눈물 흘리고
穿巷寒驢鳴	골목 나가는 느린 나귀도 울어대네.

지난해 밀양에서 어머니 삼년상을 마치고 북쪽으로 금산으로 부인과 함께 왔습니니다. 어머니 상을 같이 치른 말 그대로 조강지처이고 30년을 같이 살면서 자식들이 차례차례 자신들

결을 떠나는 것을 지켜본 사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점필재 혼자 정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벼슬자리에 복귀하기 위해 올라가야 합니다. 조정의 명이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올라가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필재의 마음을 아는지 전송하러 나온 여종들이 문을 막고 읍니다. 차마 주인어른을 붙잡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이 모시던 훌륭한 마님을 떠나보낸 슬픔에 우는 여종들에게서 부인의 평소 현숙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여종들의 울음은 아마 점필재의 울음을 대신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차마 울지 못하는 점필재, 그를 대신해 아이고 아이고 울음 우는 여종들. 그래서 울음이 더욱 울격 북받쳤겠지요.

이런 마음을 나귀가 알아줍니다. 마을 골목길을 나가는 나귀는 절뚝발이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거기에다 울어대네요. 아시다시피 나귀 울음은 어찌 들으면 ‘어허형’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음껏 울고 싶은 점필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참아야 합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 장부되기 어렵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躑躅愁陰雨	외로이 가는 길에 음우가 시름겨워
休休倚短亭	한가로이 작은 정자에 기대어 섰네.
衣裳皆舊製	의상은 모두 옛날에 지은 것인데
祗覺著來清	입으니 다만 깨끗함을 느끼겠구나.

혼자 가야하는 길에 장마비마저 주룩주룩 내립니다. 이 비는 아마 하늘에서 점필재를 내려다보며 우는 조씨 부인의 눈물일 것입니다. 빗물에 막혀 아니 빗물을 보며 그저 멍하니 하염없

이 정자에 기대서 있는 점필재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때 빗물은 마음까지 스며드는 슬픔의 빗물일 것입니다.

심희수(沈喜壽)라는 양반이 일타홍(一朵紅)이라는 사랑하는 기생의 죽음에 바쳤다는 유명한 한시를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님을 애도함[有傳]>입니다.

一朵芙蓉載柳車	한 송이 연꽃은 상여수레에 실렸는데
香魂何處去躊躇	향그러운 혼령은 어드메서 머뭇거리시려고.
錦江春雨丹旌濕	금강 가 봄비에 붉은 명정 다 젖으니
應是佳人別淚餘	분명 아름다운 그 사람 이별눈물이리라.

이때 문득 점필재는 비에 젖은 몸이 느껴집니다. 살펴보니 이때는 7월 한여름이라 위아래 모시옷을 입었을 텐데 모두 조씨 부인이 살아생전에 지어놓은 옷입니다. 새삼 가볍고 시원한 옷의 느낌이 느껴지며 이 옷처럼 자신에게 꼭 알맞게 모든 것을 주었던 아내의 존재가 새삼 생각납니다. 이런 때는 차마 서 있을 수 없었겠지요. 아마 주저앉아 흐느꼈을 것입니다.

예전에 아내가 죽고 나서 지은 한시들에는 유난히 옷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역시 옷감을 떠다가 직접 지어준 옷만큼 마음이 서린 것을 없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란 이렇게 몸의 느낌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올라간 점필재는 그해 1482년 겨울 휴가를 받아 금산에 내려와서 11월 20일에 조씨부인을 미곡(米谷)에 장사지냅니다. 봄에 떠난 사람을 한겨울에야 장사지낸 셈입니다. 이때 지은 한시에 나오는 “뒀날 죽어 꼭 한구덩이 들 것이니, 겹회가 온다 한들 그깟 무엇이 무섭겠소.[後死期同穴, 何須嘆劫灰]” 라는 구절에서 평생 동반자에 대한 점필재의 결연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섯째 시] 둘째 부인 문씨, 국화꽃 새 아내

점필재는 조씨 부인과 사별한 지 3년만인 1485년 봄에 문극정의 딸을 후처로 맞이합니다. 당시 점필재는 55세였으며 이조참판으로 있었습니다. 후처를 들이는데 3년이나 걸렸던 것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점필재가 전처 조씨 부인의 3년상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조씨 부인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50대 한창 벼슬살이를 해야 할 나이에 안주인이 없이 집안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손을 두어야 한다는 압박도 재혼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문씨 부인은 당시 18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잘 어거했던 것 같습니다. 연보에 “부도(婦道)를 매우 잘 닦아서 집안을 다스리는 데에 법칙이 있었으므로, 일을 까다롭고 잔달게 간섭하지 않아서 집안이 화목하였다.”라는 칭찬은 빈말만이 아니고 문씨부인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문씨 부인을 언급한 한시는 딱 두 수가 남아있습니다. 그중 <중구일에 혼자 앉아서 무료하던 차에 아내가 국화주 석잔을 권하였다. 이날 백관들이 창경궁에서 인수왕비의 탄신을 하례하였는데 나는 병으로 가지 못했다[重九獨坐無聊，妻勸菊酒三杯。是日，百官於昌慶宮，賀仁粹王妃誕辰，余以病未赴。]>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봄에 결혼했으니 중구일이면 6개월쯤 지난 시기입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의 생일은 바로 중구일입니다. 이때 점필재는 탄핵을 받아 이조참판을 그만두고 동지중추부사로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는 병든 늙은 몸과 늦게 편 국화와 새로

결혼한 어린 아내가 묘한 대비를 이루는 좋은 시입니다. 또한
문씨 부인의 앞날을 예언하는 듯하기도 합니다.

病阻坤寧慶 병으로 왕비 탄신 하례엔 못 나가고
伶俜入睡鄉 홀로 쓸쓸히 꿈나라에 들었네.
歲饑陽九值 흉년 든 해에 중앙절을 만나니
酒貴斗千翔 술이 귀해 두천(斗千)으로 뛰어올랐는데.

병으로 왕비 탄신에 못 갔다고 하지만 사실 이 시기 점필재
는 탄핵을 받아 근신에 가까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
음이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나이도 55세면 당시로는 매우 높은
나이였습니다. 홀로 낮잠을 잤다고 하는데, 진짜 낮잠을 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생각 저 생각 상념에 잠긴 것을 이렇게
표현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해는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늙은 데다가 흉년까지 겹쳤으
니 안 좋은 일의 연속입니다. 이조참판으로 일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별 것 아닌 일에 탄핵받아 밀려난 점필재의 모습과 같
습니다. 거기에다 술값까지 매우 높습니다. 두천(斗千)이라고 했
으니 한말(一斗)에 천전(千錢), 곧 열 냥이나 했다는 이야기입니
다. 물론 과장이겠지만 세상일 잊고 혼자 쉬며 술 마시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內子眞佳士 아내는 참으로 훌륭한 여사이고
黃花亦國香 국화는 또한 향기가 뛰어나도다.
莞然成一笑 빙그레 한번 미소를 짓고
籬下罄三觴 울타리 밑에서 석 잔을 기울이네.

이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새색씨 문씨 부인이 국화주를 받

쳐 들고 온 것입니다. 본래 증구일은 국화주를 마시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날 점필재에게는 이 국화주 석 잔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딸보다 더 어린 후처는 사랑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훌륭한 여사라고 한 말로 보아 문씨 부인은 점필재가 그저 어리다고만 볼 수 없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화처럼 짙은 향기를 가진 어떤 인격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연보에서 보았듯 집안을 어거할 수 있는 능력과 감화력도 그 중의 하나이겠지요.

어쨌든 문씨 부인은 점필재에게 늦게야 다시 찾아온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봄여름 다 보내고, 다른 꽃들이 피는 시절 다 보내고 늦가을에야 피는 국화처럼 자신도 늦게야 이 아내를 맞아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씨 부인의 얼굴이 국화처럼 동그랗고 단풍에 물든 듯 발그레하네요.

고운 아내와 아름다운 국화. 국화향기와 술 향기.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이 행복을 느끼면서 문득 젖어드는 기쁨에 겨워 절로 웃음이 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앞의 네 구에서 보여주었던 병들고 술도 귀한 어려움을 단번에 없애주는 마술과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이 행복은 봄에 얻어서 이제 가을이 되었으나 아직 신혼의 행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점필재가 보기에 늦게 피는 국화처럼 늦게야 찾아온 어린 아내가 주는 국화주 향기만큼의 이 행복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이 조정에서의 불행까지도 극복해줄 수 있는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씨 부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럴까요. 그녀도 늦게

핀 국화 같은 그런 존재였을까요? 물론 그녀는 국화 같은 존재였지만 점필재가 느낀 국화와는 전혀 다른 국화였습니다. 국화가 늦게 핀다는 것은 서리를 이겨내고 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흔히 ‘오상고절(傲霜孤節)’이라고 하여 고난을 극복하는 인생을 가리킬 때 국화에 비유하곤 합니다. 점필재는 그저 만년의 행복에 겨워 생각도 못했겠지만 문씨 부인의 일생은 바로 국화 같은 고난으로 점철된 일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점필재가 남겨준 유산 때문에 빛어진 일이었습니다.

문씨 부인은 18세에 점필재에게 시집와서 1남 1녀를 낳고 7년만인 25세 때 남편 점필재를 떠나보냅니다. 아마 이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다시 6년만인 31세 때 무오사화가 일어나 남편 김종직은 부관참시 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된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남편이 키운 젊은 제자들이 당시 왕인 연산군과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한 번에 몰살당했고 배후로 지목된 남편도 화를 입게 됩니다. 이때 문씨 부인은 전라도 운봉으로 정속(定屬)됩니다. 쉽게 말해 관비(官婢)가 된 것입니다.

이후 중종반정이 나기까지 8년 동안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은 부관참시 되고 젊은 제자들은 능지처참되거나 남북으로 갈려 귀양을 갑니다. 다시 6년 뒤인 1504년 갑자사화 때는 남편의 제자들인 김굉필, 남효온, 조위, 강백진 등 모두가 부관참시 되거나 능지처참되는 등 사태는 극에 달합니다. 말 그대로 죽은 남편이 남긴 업을 문씨 부인이 모두 당한 것입니다.

39세 되던 1506년 중종반정으로 남편은 신원되고 겨우 살길이 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밀양으로 돌아와

아들과 딸을 키워 결혼시키고 간신히 집안을 유지해 갑니다. 아들 송년은 나이가 어리다고 죽이지 않아 다행히도 집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552년 4월 23일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녀는 아들 송년을 1539년 먼저 보내고 나서 손자와 증손자들을 어거하며 집안을 일으킵니다. 결국 밀양을 떠나 고령군 쌍림면 개실마을에 안착하기까지 점필재 집안에서 모든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문씨부인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큰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선산김씨 점필재파는 점필재보다는 오히려 문씨 부인의 힘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가졌다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녀의 삶은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린 속에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피는 향기로운 국화 그대로였습니다. 때로 한시를 보다 이렇게 마치 예언과 같은 시를 마주하고 망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점필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시는 문씨 부인의 앞날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씨 부인은 만년에 이제 다 이루어졌다며 행복한 국화주 석 잔을 마셨을까요? 아마 마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곱째 시] 늦둥이 아들 송년, 어리둥둥 내아들아

점필재의 아들 송년에 대해서는 딱 한수의 시가 남아있습니다. 56세 되던 1486년에 지은 <칠월 이십이일에 기쁨을 기록하다 [七月二十二日志喜]>가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들이 태어난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첫째부인 조씨에게서 세 아들을 두었으나 모두 20세도 안되어 죽었는데 재혼한 문씨부인에게서 다시 아들 송년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시에서 점필재는 기쁨을 한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眼有昏花牙齒無	눈은 어른거리고 치아도 없지만
猶誇造物不嫌吾	조물주가 나를 꺼리지 않은 게 자랑스럽네.
少於白傅纔三歲	백부보다 겨우 세 살이 적은 나이에
賽却徐卿已二雛	서경의 두 아이보다 훌륭한 아이 얻었네.

눈도 침침해지고 이빨도 빠진 늙은 몸이라 자식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물주가 안 버리고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고 하네요. 백부(白傅)는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인 백낙천 곧 백거이입니다. 점필재처럼 역시 세 아들이 요절하고 만년인 58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시 짓는 것은 백낙천보다 못하지만 아들복은 낫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깨가 으쓱했겠지요.

서경의 두 아들은 두보가 지은 <서경의 두 아들 노래 [徐卿二子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두보는 각각 9세, 5세가 된 서경이란 사람의 두 아들을 두고 온갖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점필재는 ‘까짓 지들이 잘 나왔자지! 또 둘이면 뭐해, 내 아들 하

나만 못하다.며 코웃음을 칩니다. 56세에 아들을 두었으면 누구
라도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繼序唯論母貴賤 대를 잇는 데는 어미의 귀천을 논할 뿐이요
揚名正係子賢愚 명성 떨치는 것은 자식의 현우에 달렸다고.
他年反哺將誰責 후일에 효도하기를 누가 책임지우랴
且弄明珠獨自娛 우선 명주를 어르며 스스로 즐길 뿐이네.

승년이 적자로 태어나서 정말 기쁘다는 뜻입니다. 성종조 이
때 적서차별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신분은 아버지의 신분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는 종모법(從母法)이 막 생겨난
시기였습니다. 또 아버지의 명성이 세상에 남는가 아닌가는 자
신의 공적보다 자식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달려있다고 하고 있
습니다.

하지만 갓태어난 아들을 안고 점필재는 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뒷날 효도하는 거야 이 애한테 책임지울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태어나줘서 고맙기만 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
실 아이들은 자라서 부모한테 효도할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
다. 어릴 때 방긋방긋 웃는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효도
했다는 것입니다. 점필재의 현재 심정이 딱 그러네요.

56세면 오늘날로 따지면 80세도 넘은 나이입니다. 당시에는
대가 끊기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러리라고
생각했다가 뜻밖의 경사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쁘기만
한 점필재는 이때 태어난 승년이 자신의 사후 자신이 남긴 업
때문에 목숨까지 위태로웠으나 나이가 어려 간신히 모면하고
끝내 집안을 일으키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 에필로그: 다정다감했던 점필재,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

이상으로 점필재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쓴 한시 몇 편을 골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도 다 다르고 쓴 시기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점필재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가졌던 깊고도 절실한 사랑입니다. 그는 마음속 저 깊은 곳까지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김숙자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천지가 그저 아득해지는 떠나간 자식에 대한 슬픔, 아내 조씨에 대한 결연한 사랑과 의리, 문씨 부인과의 행복. 이 모든 것에서 느껴지는 것은 상대에 대한 절절한 사랑입니다. 아마 그 누구도 점필재만큼 자신의 가족 성원을 이렇게 절실하게 사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점필재의 한시를 읽노라면 점필재가 자신과 접한 사람과 사물을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필재의 모든 사업과 교육과 문학의 뒷면에는 사람과 세상에 뜨거운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기반한 정의, 그에 기반한 도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당대 젊은 지성들의 표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은 가족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었기에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한시와 그림으로 읽는
점필재 선생의 따뜻한 가족애
_ 그림

